한낮 더위 씻은 소나기 소나기가 쏟아진 3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분수대 옆을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늘어가는 폐교 어찌하오리까

전남 지난해까지 810곳…116곳 활용방안 못찾아

한해 관리비 수억원…반대여론에 대관·매각도 어려워

지난 3월 보성군 웅치면사무소에 보성교육청 공무원이 나타났다. 바로 옆 폐교된 웅치초등학교 대부(임대) 공고를 위한 사전 단계로 면사무소를 통해 인근 주민 여론수렴에 나선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수년째 학교가 방치돼 매년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매월 찾아와 파손된 곳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학교를 매각하고 새로운 시설을 입주시켜 마을이 활기를 되찾으면 좋겠지만 모교를 팔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 우선 시설을 대부하기로 했는데, 임자가 나타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남지역에서 학교 통·폐합, 폐교가 잇따르면서 폐교 관리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백여 곳 넘는 폐교 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과 수고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폐교 활용 방안은 수련원·야구장 등 교육목적 시설로 전환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활용하는 것이지만 학생 감소로 이 또한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남지역 전체를 통틀어 폐교 수는 810개교다. 지역별 폐교 숫자는 신안 76곳, 완도 74곳, 고흥 75곳, 여수 62곳 순이며, 목포가 5곳이다.

이 가운데 636곳은 매각(574곳), 반환(7곳), 교환(12곳), 자체활용(43곳)돼 사실상 관리 부담은 크지 않다. 나머지 174곳 가운데 58곳 역시 대부 중이어서 당장의 관리 부담은 적다. 문제는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116곳의 폐교다.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신안(15곳)이며, 여수 13곳, 나주 11곳 순이다. 목포·장흥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적어도 1곳부터 많게는 9곳의 폐교가 방치돼 있다.

이들 학교를 관리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당 연간 150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대략 2억원 가까운 예산이 폐교 관리에만 쓰이는 것이다. 폐교 관리를 위해 지난해까지 연간 100만원씩 지원해왔으나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역 교육청 요청을 반영한 예산이다.

폐교관리 담당자들은 유리창이나 자물쇠 등 시설물이 파손된 곳은 없는지, 무단경작 등 불법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피려고 매월 한차례 이상은 폐교를 둘러봐야 한다. 여름 철이면 제초작업도 한다. 행·재정적 비용이 들고 빈집처럼 농어촌 마을의 흉물로 전락해 가뜩이나 활기가 사라진 마을을 침체에 빠트린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에도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폐교 임대 절차가 까다롭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있어 명쾌한 활용방안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폐교 대부의 경우 전체 감정평가액의 5%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해 시골 학교의 경우 선뜻 빌려쓰려는 자가 나타나지 않고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모교를 팔아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매각 반대에 나서는 주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을 위해 기본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다. 우선 폐교재산을 직접적인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폐교의 활용가치 등을 고려해 보존 폐교는 최소화하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존 부적합 폐교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 관리비용을 절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 3년내 20곳 추가 폐교 우려

교육청, 내달 휴교 대상 통·폐합 여건 조사

향후 3년 안에 전남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20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6월 중으로 휴교 상태인 20개 학교(분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학교에 단 한명의 학생도 없어 휴교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을 통해 학교 재개교 및 통·폐합 여건을 파악한다. 사실상 폐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상학교는 신안지역의 경우 암태초추포분교장 등 초등학교 8곳, 목포의 경우 목포서산초 충무분교장 등 초교 2곳이다. 여수는 여안초여남중안도분교장 등 중학교 1곳과 초교 4곳, 완도는 보길동초예작분교장 등 초등학교 2곳, 진도 1곳(오산초금호도분교장), 영광 1곳(법성포초안마분교장), 해남 1곳(어란진초어불분교장)이다. 이들 학교는 짧게는 1년 3개월가량, 길게는 6년3개월 가량 학교 문을 닫고 휴교 중이다. 이 가운데 신안 지도초선치분교장을 비롯한 신안지역 초등학교 5곳은 올 9월 1일자, 여수 거문초덕초분교장 등 초등학교 2곳은 내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이미 확정됐다.

나머지 13개교도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학 아동이 없는 등 재개교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르면 2~3년 내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폐교를 뒷짐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궐련형전자담배 유해성 내달 발표

흡연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가 내달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를 6월 13일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검사에 들어간 지 11개월만이다.

평가대상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 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등 3종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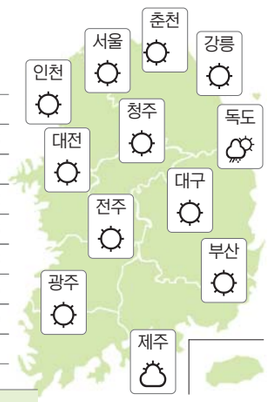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5:20	달뜸	21:04
해짐	19:41	달짐	06:35

따뜻한 햇살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16/26	보 성	맑음	15/24
목 포	맑음	16/22	순 천	맑음	17/26
여 수	맑음	18/25	영 광	맑음	14/23
나 주	맑음	15/25	진 도	맑음	15/22
완 도	맑음	17/25	전 주	맑음	15/26
구 례	맑음	15/26	군 산	맑음	14/23
강 진	맑음	16/25	남 원	맑음	15/25
해 남	맑음	16/24	흑산도	맑음	15/20
장 성	맑음	14/2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먼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먼바다(동)	서~북서	0.5~1.0	서~북서	0.5~1.5
	먼바다(서)	서~북서	1.0~1.5	북서~북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34	03:25
	20:30	15:15
여수	04:02	09:55
	15:51	22:31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6/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16/30	17/32	17/31	17/30	18/27	18/28	18/28

호남화력 2호기 미세먼지 배출 전국 세번째

여수에 있는 호남화력발전소 2호기의 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연간 발전량 173만6403MWh)는 54만8000㎏, 2호기(169만9859MWh)는 62만9000㎏의 미세먼지를 배출했다.

1,2호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기 1MWh(1000KWh) 생산 당 배출량으로 따졌을 때 각각 0.316㎏, 0.370㎏이었다. 2호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곳은 삼천포화력 5호기(0.498㎏/MWh), 다음은 삼천포화력 6호기(0.463㎏/MWh)였다.

호남화력발전소와 같은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을 적용했을 때 또다른 화력 발전소인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는 0.057㎏/MWh, 2호기는 0.035㎏/MWh으로 비교적 낮았다. /김용희 기자 kimyh@

"대법, 근로정신대 피해자 재판방해 사죄하라"

민변 광주전남지부·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성명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판 방해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는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범죄행위이자 사법방해로, 양 전 대법원장 등 범죄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